

김성수의 일본유학과 인간관계네트워크의 형성

-대한홍학보 분석을 중심으로-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경성방직과 동아일보 설립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김성수의 인간관계형성에 주목하려고 한다<sup>1</sup>. 개인과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며 이러한 관계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경성방직과 동아일보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유학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일본유학에 주목한 것은 경성방직설립에 188명, 동아일보는 416명의 출자자(주주)가 있었다. 출자자의 출신지역은 한국전역에 걸쳐 있었다. 경성방직과 동아일보를 설립하는데 있어 전국에 걸친 많은 출자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성수의 유학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수가 유학했던 1909 년에 유학생들이 발행한 대한홍학보와 일본유학을 경험한 이들이 남긴 자서전, 그리고 그들이 일본에 재학한 학교자료를 통해 김성수의 일본유학을 통한 인간관계네트워크형성을 밝히겠다. 연구시기는 김성수가 일본에 유학한 1908 년 이후부터 대한홍학보가 발행되던 1910 년까지이다.

1. 회사설립 참가자

경성방직과 동아일보의 출자자(주주) 모두를 파악할 자료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일부 인물들에 한정해서 그들의 출신학교, 거주지, 직위 등을 확인해 보겠다.

(1) 경성방직

경성방직설립에 참가한 인물을 간단하게 보겠다. 경성방직의 회사출원에 관한 기사가 1919년 2월 20일 『每日申報』에 게재됐다<sup>2</sup>. 그 내용은 조선의 유력자에 의한 회사의 기획 및 허가신청을 총독부에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신문에 게재 된 조선의 유력자는 12명으로 후작 박영효<sup>3</sup>를 비롯해 김기중, 김경중, 이일우, 최준, 윤홍섭, 김찬영, 최희순, 이승준, 김성수, 윤현진<sup>4</sup>, 김영철이다. 이들 중에 일본유학과 관련이 있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홍섭은 1912년 도일하여 1916년에 早稻田대학정치경제과를 졸업했다<sup>5</sup>. 즉 윤홍섭은 김성수의 早稻田대학정치경제과의 2년 후배이다. 早稻田대학의 한국인 졸업생은 매년 10여명내외였다(1923년까지). 김성수가 졸업한 1914년 졸업생수는 9명이다. 윤홍섭이 졸업한 1916년 졸업생수는 7명이다<sup>6</sup>. 즉 早稻田대학에 재학중인 한국인은 소수였다<sup>7</sup>. 早稻田대학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907년 11월에 早稻田대학大韓人학우회를 조직했다<sup>8</sup>.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김성수와 윤홍섭의 관계가

성립됐다고 할 수 있다.

윤현진은 1916년에 明治대학을 졸업했다. 동일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김성수가 1914년에 졸업해서 귀국했으므로 윤현진과 김성수의 在日시기가 겹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김찬영은 도쿄에서 조직된 대한유학생회의 회원이었다. 경성방직과 관계가 있는 대한유학생회의 회원으로 안중건, 윤영은이 있다<sup>9</sup>.

다음으로 1919년 10월 5일 경성방직설립총회에 31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중에서 21명의 이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1은 이들의 이름과 출신학교, 졸업년도 등을 나타낸 것이다. 표1에는 경성방직 사장으로 선출된 박영효가 빠져있다. 경성방직 경영진에 박영효는 사장으로 선출되지만 창립총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성방직설립총회에 참석한 21명중 12명이 일본유학경험자며 경영진구성에 있어서도 6명의 취체역중 5명이 유학경험자이다. 취체역이 되기 위한 조건중에 하나는 전체 발행주식의 1%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즉 취체역은 회사경영과 자본조달 양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12명의 일본유학경험자의 출신학교도 다양하며 출신학교위치는 대부분 도쿄였지만 교토(김우영)에 있는 학교졸업자도 포함돼 있으며 졸업연도도 다양하다. 이러한 이들이 경성방직설립에 참여하게 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1909년 결성된 대한홍학회에 대해 주목하려고 한다.

표 1 경성방직설립총회 참가자와 출신학교

	이름	출신학교	졸업년도	중역
1	고원훈	明治대학	1911년	
2	김상옥	明治대학	1912년	
3	김성수	早稻田대학	1914년	취체역
4	김우영	교토제국대학	1919년	
5	박용희	도쿄제국대학	1913년	전무취체역
6	선우전	早稻田대학	1915년	취체역
7	심명섭			
8	안중건	불명	불명	취체역
9	안중만			
10	양원모	早稻田대학	1918년	
11	윤상은			취체역
12	윤정하	도쿄고등상업학교	1909년	
13	이강현	도쿄고등공업학교	1911년	취체역
14	이승준			감사역
15	이일우			감사역
16	장두현			감사역
17	장춘재			감사역
18	조설현			감사역
19	최두선	早稻田대학	1917년	
20	현준호	明治대학	불명	
21	小針重吉			

출처: 『韓國留學生運動史-早稻田대학우리동창회 70 年史-』, 『경방과 그 인맥』 (미간), pp.14-15 등에서 작성

(2) 동아일보

동아일보 발기인은 78 명이며 이들은 회사설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sup>10</sup>. 이들의 거주지역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표 2). 이러한 전국에 걸친 발기인 네트워크는 신문사 설립뿐만이 아니라 설립이후에 필요한 지방의 정보수집, 판매망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1</sup>.

표 2 발기인의 거주지별 인원

단위: 명

지역	경성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합계
인원	13	3	2	3	11	9	4	17	1	7	1	4	2	1	78

출처: 『仁村 金性洙傳』 pp.182-183. 仁村 金性洙傳에는 고광준이 누락되어 있다.

이들이 발기인으로 참가하게 된 배경은 물론 신문사의 설립에 있지만 각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발기인이라는 집단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인간관계를 들 수 있다. 표 3 은 동아일보의 발기인 명부이다. 발기인으로 참가한 사람으로 먼저 김성수의 친인척관계를 들 수 있다. 김성수의 양부인 김기중, 김성수의 인척인 고하주, 고광준, 고광일이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다음으로 김성수의 출신지역인 전라도지역에서 발기인으로 참가한 현준호가 있다. 김성수와 현준호, 송진우는 고정주가 세운 창흥의숙에서 같이 수학한 사이이다. 김성수와 함께 수학한 송진우는 동아일보설립 초기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설립이후에 1921 년 9 월부터 사장을 맡는다. 친인척관계와 출신지역의 친구관계에 의한 발기인 참가는 김성수의 출신지역에 한정된다.

다음으로 발기인의 거주지가 경남이 17 명으로 가장 많다. 이것은 부산에서 신문사 설립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 움직임을 동아일보설립에 흡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의 인사들을 동아일보와 연결시킨 인물이 윤상은이다. 윤상은은 동아일보뿐만이 아니라 경성방직취체역으로 김성수의 사업에 참가하며 김성수와 경남지역과 연결 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동아일보의 발기인명부로 발기인 중에 유학경험자는 표 3 의 우측에 정리한 것이다. 즉 전국 각지의 인사들을 발기인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요인으로 일본유학을 들 수 있다. 발기인은 전국 각지에 걸쳐 있지만 유학경험자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충북, 강원, 평남, 평북, 함남, 함북의 발기인 중에 유학경험자는 없다. 이러한 지역의 발기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동아일보의 발기인으로 참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

다음으로 유학경험자중에서 경성거주자가 6 명으로 가장 많다. 유학경험자들이 귀국후 경성에서 활동한 것이 이들을 동아일보 발기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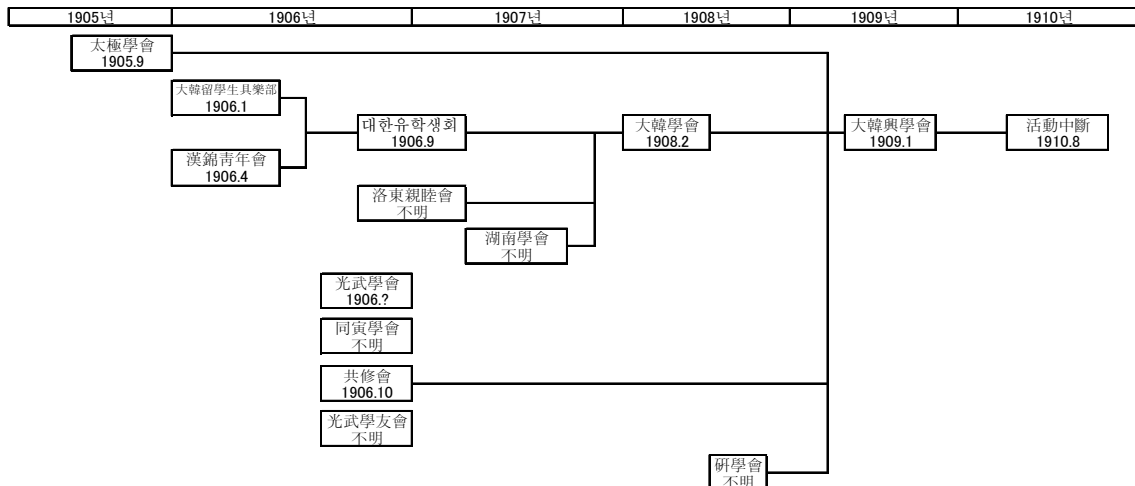
표 3 동아일보발기인과 유학경험자

지역	이름					유학경험자				
경성	박영효	장두현	이응선	장춘제	임면순	박용희	김우영	이강현	이상협	김성수
	박용희	김우영	이강현	이경세	이상협					
	김병태	현준호	김성수							
경기	고윤복	나홍석	이정열			나홍석				
충북	유세면	이상덕								
충남	김영복	정재원	성위경			성위경				
전북	김기중	정해노	박장진	이철환	홍종철	변광호	변광호			
	은성우	김기동	강방현	변광호	정봉수					
	박정식									
전남	박하일	김형옥	고하주	고광준	고광일	고광준				
	김영수	이재혁	서맹수	박이규						
경북	정충원	이승목	최준	손수문		정충원				
경남	문상우	이종화	손영돈	문영빈	김종원	문상우	윤현대	윤상은		
	안희제	김시구	윤상은	윤병호	윤현대					
	지영진	김병규	허걸	김홍조	이종순					
	이병목	최연무								
강원	이봉하									
황해	김영택	이승준	이운	장덕수	장덕준	장덕수				
	이태건	이충건								
평남	이효건									
평북	오희원	최준성	이규중	장희봉						
합남	이중호									
합북	김순선	김효택								

출처: 『東亞日報社史 卷一』, 『仁村 金性洙傳』에서 필자 작성

## 2. 유학생의 활동

그림 1 1905년~1910년 한국인 유학생회



주: 유학생회의 창립시기와 통폐합시기중 일부는 알 수 없다

출처: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에서 작성

김성수가 일본에 유학한 것은 1908년 10월이다. 당시 유학생회는 태극학회, 대한학회, 공수회, 연학회로 나뉘어져 있었다(그림 1)<sup>13</sup>. 대한학회는 대한유학생회와 낙동친목회, 호남학회가 합쳐져서 결성된 조직이며 김성수의 출신이 호남이므로 대한학회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한학회월보 신입회원란에서 김성수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4개의 유학생회는 1909년 1월에 통합되어 대한홍학회가 발족된다. 대한홍학회 월보 4호(1909년 7월) 회원록에 김성수가 회원으로 게재되었다. 대한홍학회회원록은 대한홍학보 2호(1908년 4월)부터 4호에 걸쳐 있으므로 김성수의 대한홍학회 가입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초기 회원명부에 게재되어 있는 것에서 대한홍학회 설립초기부터 회원으로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 출신학교와 유학시기

표 4는 김성수와 경성방직 전무취체역인 박용희, 상무취체역인 이강현, 경성방직과 동아일보설립에 참가한 문상우, 윤정하가 일본에서 다닌 학교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경성방직과 동아일보 설립 관계자의 학력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1911년	1912년	1913년	1914년
김성수					正則영어학교		와세다대학입학				외세다대학졸업
박용희	順天중학교입학		제일고등학교입학								도쿄제국대학졸업
이강현		正則예비학교	도쿄부립제일중학교				도쿄고등공업학교졸업				
문상우							도쿄고등상업학교졸업				
윤정하		도쿄부립제일중학교				도쿄고등상업학교졸업					

출처: 『仁村 金性洙傳』, 阿部洋「旧韓末の日本留学 I、II、III」 『韓』 29호, 30호, 31호에서 필자 작성

이들이 도일한 연도는 박용희가 도일한 1904년부터 김성수가 도일한 1908년까지 다양하다. 통학한 학교도 도쿄고등공업학교, 도쿄고등상업학교, 도쿄제국대학, 早稻田대학 등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본 도쿄에 유학한 것이다. 또한 도일한 시기는 틀리지만 在日시기에 겹치는 시기가 존재한다. 즉 이 시기에 이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일시기가 겹치는 시기에 대한홍학회가 설립된다.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홍학회가 이들의 인간관계형성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경성방직과 동아일보 설립 관계자의 유학생회에서의 역할

	1906년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김성수					대한홍학회간사원
박용희	태극학회평의원		대한학회평의원	대한홍학회총무원	
이강현				대한홍학회회계부장	
문상우			대한학회평의원	대한홍학회회장	
유정하			대한학회평의원	대한홍학회평의원	

출처: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에서 작성

## (2) 대한홍학회의 회원자격과 가입절차

대한홍학회 회원자격은 「제국동포중 동지인사」이며 회원은 통상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누어 진다. 통상회원은 「본회의 위치부근지에 在하여 일반의무를 이행하기 가능한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의무란 회에 참석과 회비납부(月 10 錢),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즉 현재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회원이 통상회원이다. 대한홍학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회원중 보증인과 聯署제출후 총회 또는 평의회에서 허가한 자」이다<sup>14</sup>.

김성수가 대한홍학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김성수가 도쿄에 있는 유학생중 도일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홍명희<sup>15</sup>이다. 홍명희는 대한홍학회 회원이었다(그림 2 참조). 홍명희가 도쿄에 있는 大成중학교 학생이었으며 방학 때 귀국했을 때 김성수와 만났다. 김성수가 일본생활을 시작하는데 홍명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김성수는 正則영어학교에 입학했으며 1909년 4월에는 錦城중학교에 편입한다. 正則영어학교는 상급학교에 진학준비를 위한 예비교였으며 이 학교에 많은 한국인 학생이 다니고 있었다. 1913년 유학생감독 荒木에 의하면 유학생이 통학하는 학교중에서 正則영어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김성수가 대한홍학회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인(대한홍학회회원)은 홍명희나 그가 통학한 학교교우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 대한홍학회 참가자

대한홍학회는 여러출신지역 유학생회와 관비생조직(공수회)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단체이다. 즉 이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출신지역과 관비·사비의 경계를 초월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정기적인 모임에 참가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대한홍학회 활동을 회에 참가하는 인원과 총회, 회비납부 등을 통해 살펴보겠다.

### ① 회원수와 총회 참가자수

대한홍학회 회원은 559명이다. 많은 회원이 참가하는 행사는 일년에 수차례이다. 대한홍학회 모임에서 회원이 가장 많이 모인 것은 제 1회 창립총회(1910년 1월 10일)로 내빈을 포함해 400여명이 모였다<sup>16</sup>. 다음으로 유학생에게 있어 가장 경축할 행사인 졸업축하회가 1909년 봄에 개최된다<sup>17</sup>. 이 회에 참가한 회원이 200여명이다.

마지막으로 대한홍학회 춘기운동회는 1909년 4월 1일에 개최돼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다<sup>18</sup>. 100명이상의 회원이 모이는 행사가 일년에 수차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모임이 회원상호간에 동일회의 회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 회원이 모이는 것이 총회이다. 회원은 회에 참가할 의무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회원은 총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총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방학기간 등 일부 停會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9</sup>. 표 6은 대한홍학회 총회 참가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총회 참가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회와 2회, 4회, 5회, 6회, 9회뿐이다. 회원이 500명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명이내이다. 즉 회원 중에 총회에 참가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대한홍학회에 가입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관계도 회에 참가하는 회원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총회참자인원      단위: 명**

회수	참가회원	연월일
1회	83	1909년 2월 7일
2회	79	1909년 3월 7일
3회		
4회	65	1909년 4월 4일
5회	45	1909년 5월 2일
6회	94	1909년 7월 4일
7회		1909년 10월 3일
8회		1909년 11월 7일
9회	99	1909년 12월 5일
10회		1910년 2월 6일
11회		1910년 3월 6일
12회		
13회		1910년 5월 1일

출처: 『대한홍학보』 각호에서 작성

## ②회비와 월연금

회비납부는 회원의 의무이다. 그러나 회비 월 10 전으로는 회를 운영하는 자금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에게 월연금(월 50 전)이 새로이 부과되었다<sup>20</sup>. 회비 납부와 월연금의 납부상황을 통해 대한홍학회 회원이 회에 어느 정도 참가했는지 살펴보겠다.

표 7은 대한홍학회 회비수입과 월연금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회비수입은 대한홍학보 8호의 회계보고부터 파악할 수 있다. 회비수입을 회원 일인당 회비 10 전으로 나누면 몇 명이 회비를 납부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단 체납한 회비를 납입한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을 1인당 회비로 나누는것이 회비를 납입한 회원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한홍학보 8호에 나타난 회비수입은 10圓 50錢으로 이것은 105명이 회비를 납부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회비수입은 10호까지 점증하고 있지만 11호에는 9원

20 전으로 줄어든다. 그 이후에 회비수입이 늘어난 것은 대한홍학보 11 호와 12 호에 걸친 「긴급광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긴급광고는 당회의 재정이 곤란하니 학보대금을 신속하게 납부해 달라는 것이다. 이 광고 이후 회비수입금액이 증가하며 월연금납부자도 동시에 증가한다.

대한홍학회의 월연금은 매월 50 전이다. 표 7 에서 월연금의 일인당 납부액이 50 전을 넘는 것은 체납한 월연금을 납부하거나 익월 월연금을 미리 납부하기 때문이다. 11 호에 긴급광고가 게재된 이후 월연금 일인당 납부액이 1 원 19 전에 달했다. 즉 체납된 월연금의 납부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연금은 1909 년 10 월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 10 월 월연금 납부자는 94 명으로 이후 매월 월연금 납부자가 줄어들어 1910 년 4 월에는 20 명까지 줄어들었다(첨부자료 참조). 1909 년 10 월부터 1910 년 3 월까지 월연금을 완납한 회원은 13 명에 지나지 않는다. 13 명은 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완납한 회원은 대한홍학회 회장을 역임한 문상우를 비롯해 박용희, 최한기, 이강현, 민천식, 정봉진, 김성수, 이인창, 마현희, 송진우, 김진용, 정세운, 김상옥이다. 경성방직과 동아일보설립에 관여한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표 7 회비 및 월연금 납부현황

회비(1인 10錢)				월연금납부자			
발행호	발행일	금액(圓)	금액÷회비(10錢)	인원	금액(圓)	1인당 납부액	
8호	12월	10.50	105	7호	42	24.50	0.58
9호	1월	17.30	173	8호	57	34.25	0.60
10호	2월	24.50	245	9호	62	43.00	0.69
11호	3월	9.20	92	10호	24	17.50	0.73
12호	4월	24.50	245	11호	22	18.50	0.84
13호	5월	30.24	302	12호	26	31.00	1.19
				13호	38	28.00	0.74

출처: 『대한홍학보』 각호에서 작성

### ③ 의연금

의연금의 납부는 기부행위이다. 즉 회원이 의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 표 7 은 대한홍학회 의연금납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의연금이 가장 많이 모인 것은 대한홍학보 7 호(1909 년 11 월 2 일 발행)로서 이 시기는 제 7 회 총회(1909 년 10 월 3 일)때 회의 재정문제로 월연금제도를 만든 이후이다. 대한홍학보 7 호 의연금 납부자 명단에서 의연금 납부에 회원이 다수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월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회원으로 부터 의연금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의 재정난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제 13 회 총회(1910 년 5 월 1 일)에서도 회원으로부터 280 여원의 의연금을 모으기도 했다. 즉 의연금은 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원에게 부과되는 되었다.



표 8 의연금 납부 현황

	납부인원(명)	금액(원)
1호	5	12
7호	87	379.7
8호	20	56.5
9호	8	17.485
10호	20	37.5
11호	3	5
12호	3	7
13호	10	45
5월 1일		280여원

주: 1 호의 의연금의 일부는 대한학회에 대한 것임.

출처: 『대한홍학보』 각호에서 작성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홍학회에 참가하는 회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홍학회에 김성수가 회원이라는 것과 경성방직과 동아일보 설립에 참가한 사람이 대한홍학회 회원이라는 것 만으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김성수의 대한홍학회 활동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 3. 대한홍학회와 김성수의 인간관계형성

대한홍학보는 1909 년 3 월부터 1910 년 5 월까지 발행된다. 즉 김성수가 1908 년 10 월에 도일했기 때문에 대한홍학회에서의 김성수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은 대한홍학보가 발행된 시기로 한정된다. 김성수의 대한홍학회 활동을 월연금과 의연금의 납부, 회 운영참가여부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월연금은 회원이 매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 납부하는 회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첨부자료 참조). 김성수는 월연금이 도입된 1909 년 10 월부터 대한홍학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1910 년 5 월(단 회비의 징수는 4 월까지)까지 빠짐없이 월연금을 납부했다. 즉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회원이었다.

다음으로 의연금은 낼 의무가 없으나 대한홍학회는 2 회에 걸쳐 회원으로 부터 의연금을 거두었다. 그 중에서 납부한 회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 회뿐으로 김성수는 5 원의 의연금을 냈다<sup>21</sup>.

마지막으로 김성수가 회 운영조직에 참가한 것은 1910 년 4 월 3 일에 열린 각부부원 선거에서 幹事員으로 선출면서이다. 간사원의 임무는 「총무원을 贊助하여 凡百사무에 종사」 하는 것이다. 총무원의 임무는 「회장의 지휘를 承하여 會中제반사무를 처리」 하는 회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이다. 즉 간사원은 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무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같은 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원진의 총선거가 실시돼 총무원으로 이인창과 문상우가 선출됐다.



## 맺음말

일본 도쿄에 유학하는 것은 자신의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혈연집단 등을 떠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한국출신유학생이라는 동일한 조건이 대한홍학회를 형성하는 요인이며 김성수는 이 회의 활동을 통해 귀국후의 사업과 관련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동일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早稻田대학大韓人학우회와 고학생을 중심으로 고학생동맹을 조직하기도 하며 대한기독교청년회와 같이 종교가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대한홍학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출신지가 유학생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대한홍학회는 출신지역별로 존재했던 유학생회를 통합한 조직이며 그 결과 이 회의 회원사이에서 생기는 인간관계는 출신지역을 초월한다. 이러한 통합된 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일본 도쿄에서 맺은 인간관계이다. 일본 도쿄의 동일지역에 거주하고 동일학교에 통학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즉 대한홍학회를 형성하는 요인은 일본 도쿄라는 지역에서 생긴 또 하나의 지연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출신 인물들의 귀국과 경성방직과 동아일보의 설립사이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 이들이 귀국후 일본에서 맺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자료

	이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	이득화	○	○					
2	박하정	○						
3	박병철	○	○	○	○	○		
4	문상우	○	○	○	○	○	○	○
5	이희적	○	○	○	○			
6	김상태	○	○	○	○	○		
7	박추서	○	○	○	○	○		
8	유만수	○	○	○	○	○		
9	은성하	○						
10	박용희	○	○	○	○	○	○	
11	유풍현	○	○					
12	오덕영	○	○		○	○		
13	최락유	○	○	○	○	○		
14	고위훈	○	○	○	○			
15	박윤철	○	○	○				
16	김기형	○	○	○	○	○		
17	김창섭	○						
18	최명환	○	○	○	○	○		
19	최주성	○	○	○				
20	강매	○	○		○			
21	이창화	○	○	○	○	○		
22	김양수	○	○	○	○	○		
23	최한기	○	○	○	○	○	○	○
24	최위식	○	○	○	○			
25	이승근	○	○					
26	김국태	○						
27	김기권	○		○				
28	이종준	○	○	○				○
29	장택상	○						
30	이상욱	○						
31	남궁영	○	○	○	○			
32	박병호	○	○	○	○	○		
33	민규식	○	○					
34	이강현	○	○	○	○	○	○	○
35	강린우	○	○					
36	김종진	○	○					
37	홍수일	○	○					
38	민철헌	○	○	○	○	○	○	
39	김양두	○						
40	변희준	○	○	○				
41	최호승	○	○					
42	오동준	○	○	○	○			
43	강위서	○						
44	이대용	○	○	○	○			
45	이원응	○						
46	이득년	○	○	○				
47	최영호	○	○	○	○			
48	정봉진	○	○	○	○	○	○	○
49	김국언	○	○					
50	강두현	○	○	○	○			○

참고자료(계속)

	이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1	박용하	○	○	○	○	○		
52	김성수	○	○	○	○	○	○	○
53	강우석	○						
54	홍명희	○	○					
55	강신목	○	○	○				
56	이인창	○	○	○	○	○	○	
57	유정삼	○	○		○	○		
58	마현희	○	○	○	○	○	○	
59	김정식	○						
60	고재호	○						
61	김치연	○	○					
62	오상은	○	○					
63	김병주	○	○	○	○	○		
64	송지우	○	○	○	○	○	○	○
65	최봉오	○	○					
66	백병장	○	○	○				
67	김달집	○	○					
68	김윤영	○						
69	이한경	○	○					
70	조용은		○					
71	이복위	○						
72	최창조		○	○				
73	이중남		○	○				○
74	정광조	○	○	○	○			
75	김진용	○	○	○	○	○	○	
76	황석교	○	○					
77	이과용		○					
78	김병선		○					
79	임현경		○					
80	김승식		○					
81	김경배		○	○				
82	주범지		○					
83	고광준		○					
84	김우영		○					
85	구극소	○	○					
86	최기태	○	○	○				
87	유영대			○				
88	김택희			○				
89	신태희		○	○				
90	하중혁	○	○					
91	이풍재	○	○	○	○	○		
92	우종관	○	○	○	○			
93	조형원	○	○					
94	변지호		○	○	○	○		
95	최호선	○	○					
96	나경석	○	○	○	○	○		
97	이승환	○	○	○				
98	박인희		○	○				
99	남정규	○	○					
100	고명석	○	○	○	○			

참고자료(계속)

	이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01	변봉협	○	○					
102	변구호		○	○	○	○		
103	민재현	○	○	○				
104	강윤정		○					
105	강완선		○	○	○			
106	주기갑			○				
107	유승삼			○				
108	이분구	○	○					
109	한낙용	○	○					
110	김하익			○				○
111	임헌장			○				
112	임경엽	○	○	○	○			
113	한흥교						○	○
114	한중락						○	
115	김연목			○	○	○	○	
116	김우영						○	○
117	정세윤	○	○	○	○	○	○	
118	유위극					○		
119	최원						○	○
120	김재학			○	○	○		
121	유훈섭					○		
122	조용현						○	○
123	손문점						○	○
124	김승기					○		
125	박진훈	○						
126	마현국							○
127	공성구			○	○			
128	김낙경					○		
129	김우식	○						
130	김창진							○
131	공진태			○	○	○		
132	김상옥	○	○	○	○	○	○	
133	정이태					○		
134	김태모							○
135	방형태							○
136	김재희	○						
137	하구용							○
		94	93	68	49	39	20	20

출처: 『大韓興學報』 각호에서 필자작성

- <sup>1</sup> 服部民夫는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인간관계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자이다. 한국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服夫民夫(2005) 『開發の經濟社会学—韓國の經濟發展と社会変容—』 文眞堂의 제 1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 <sup>2</sup> 『每日申報』 1919 년 2 월 20 일 기사에 경성방직주식회사출원과 창립의 취지로서 김성수의 양부인 김기중의 담화가 게재됐다.
- <sup>3</sup> 박영효는 초기개화파의 중심인물이었다. 초기개화파는 서구문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공장제도 및 회사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조기준(1974), 『韓國企業家史』, 博英社, pp.50-52.
- <sup>4</sup> 윤현진은 윤상은의 조카이며 1908 년에 설립된 구포저축주식회사의 필두주주(32 주)였다. 조기준, 앞의 책, p.141.
- <sup>5</sup> 大韓民國文教部國史編纂委員會編(1995), 「三一宣言關係者訊問調書尹弘燮訊問調書(第 1 回)」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1 三一運動』 大韓民國文教部國史編纂委員會참조.
- <sup>6</sup> 早稻田大學우리同窓會編(1976), 『韓國留學生運動社 - 早稻田大學우리同窓會七十年史 -』, 付録資料, pp.3-4.
- <sup>7</sup> 김성수는 일본유학당시의 거처로서 집을 한채 빌렸으며 이 집은 유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仁村紀念會編, 『仁村 金性洙傳』 財團法人仁村紀念會, p.80.
- <sup>8</sup> 早稻田大學우리同窓會編(1976), 앞의 책, p.40.
- <sup>9</sup> 柳承欽 『大韓留學生會學報』 1 호(1907 년 3 월), pp.95-97.
- <sup>10</sup> 윤상은은 그의 회고록에서 「부산서도 신문발기를 하므로 나도 이에 참가하였으나(중략) 상경하여 김성수씨를 만남에 그도 서울서 신문을 받기하고 있다하고(중략) 서울과 부산이 합하여 신문하나를 완전히 만드는것이 어떻하냐고 물음으로 나 단독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라는 것에서 부산에서 신문발행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상은 『나의 回顧錄』 미간, p.21.
- <sup>11</sup> 문상우는 대한홍학회 회장을 맡았던 인물로서 귀국후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으며 동아일보 부산지국장겸 기자였다. 金相万(1975), 『東亞日報社史 卷一(1920-1945 年)』, 東亞日報社, p.423.
- <sup>12</sup> 김우영은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후 경성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한다. 그는 경성방직 설립총회에서 주식인수상황을 확인하는 검사역으로 선임됐다. 동아일보설립에 관해서는 金雨英(1953), 『靑丘回顧錄』, 新生公論社를 참조하기 바란다.
- <sup>13</sup> 유학생회에 관해서는 김기주의 연구가 있다. 김기주(1993) 『韓末 在日韓國留學生의 民族運動』 느티나무.
- <sup>14</sup> 1909 년 12 월 26 일 정기평의회에서 입회절차를 간소화했다 . 高元勳, 『大韓興學報』, 10 호(1910 년 2 월), p.60.
- <sup>15</sup> 홍명희에 대해서는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역사비평』 1992 년 가을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 <sup>16</sup> 高元勳, 『大韓興學報』, 9 호, pp.50-51.
- <sup>17</sup> 高元勳, 「我留學生界의 最高無上한 慶事는 卒業」 『大韓興學報』 1 호(1909 년 3 월), p.89.
- <sup>18</sup> 高元勳, 『大韓興學報』, 2 호(1909 년 4 월), p.62.
- <sup>19</sup> 高元勳, 『大韓興學報』, 5 호(1909 년 7 월), p.79.
- <sup>20</sup> 高元勳, 『大韓興學報』, 7 호(1909 년 11 월), 부록 p.2.
- <sup>21</sup> 高元勳, 『大韓興學報』, 7 호(1909 년 11 월), 부록 p.6
- <sup>22</sup> 高元勳 『大韓興學報』, 1 호(1919 년 3 월), pp.79-80,